'一乘圓音' 한국 범종 총망라하다

최응천 동국대 교수, 〈한국의 범종〉 출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표 法具 범종 연구 결정체
통일신라~현대 363점 정리
41점 종소리 QR코드로 담아
상세목록 · 명문 수록 의미 커
'한국 범종 백과사전'으로 평가

"신종을 매달아 놓아 일승의 원음을 깨닫고자 하니라."(懸擧神鐘 悟一乘之圓音)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성덕대왕신종의 명문 중 일부다. 신종을 달아 '일승의 원음(一乘之圓音)', 즉 부처님의 설법을 만백성에게 듣게 하겠다는 의미다. 이처럼 한국의 범종은 종소리로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는 대표적 법구다.

"종소리로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겠다"고 서원했으니 우리 선조들은 범종을 만드는 데 '진심' 이었다. 중국과 일본의 종들은 '사형주물법' 을 사용해 전반적으로 문양이 없거나 거칠며, 종의 두께가 두꺼워 종소리가 투박하다. 하지만 한국의 범종은 밀랍주조 공법을 사용해 조형적으로 아름답고 음통이 있어 소리도 은은하고 아름답다. 조형미와 실용성을 모두 구축한 성보이자 한국금속공예사의 결정체인 것이다.

금속공예 연구 전문가로 잘 알려진 최응천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동국대 박물관장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가 최근 발간한 〈한국의 범종: 천년을 이어온 깨우침의 소리〉는 '범종' 의 모든 것을 망라한 학술서다.

소중한 문화유산이지만, 남겨진 범종의 수가 한정적이고 북한과 일본 등지에 개인 소장의 형태로도 산재하고 있어 그간 한국 범종의 정확한 숫자나 상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금속공예 전문가로서 오랜 시간 범종을 연구해온 저자는 한국과 북한은 물론 일본, 미국, 프랑스 등 국내외 소재 한국 종의 현황을 꾸준히 조사해왔다. 이 같은 조사 · 연구 성과를 한데 묶어 정리한 것이 〈한국의 범종〉이다.


국보 성덕대왕신종. 한국 범종 중 가장 크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수가 범종과 인연을 맺은 것은 대학교 1학년 당시 1장당 500원씩 받는 아르바이트로 실상사 파종의 FRP 복제본 주악비천상을 탁본하면서부터다. 이후 1989년 일본 후쿠오카시립박물관 개관 때 유물관리관으로 머물면서 아카즈키(秋月)성터 지하에서 발견된 고려 범종을 조사하며 두 번째 인연을 이어갔고, 이것이 계기가 돼 일본 전역에 흩어진 한국 범종을 10년간 조사했다.

저자의 평생 연구 성과가 오롯이 담긴 만큼 〈한국의 범종〉은 '한국 범종 백과사전' 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한국 범종의 개괄부터 주요 작품에 대한 분석, 목록까지 모두 담아내고 있어서다.

책은 크게 제1부와 제2부, 그리고 부록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한국 범종의 특성과 시대별 변천을 정리하고 구조와 각 부분의 명칭, 주조법 등을 설명한다. 제2부에서는 개별 범종 작품 각각의 특징과 역사적 의미를 풍부한 이미지와 함께 살펴본다. 그리고 부록에선 각 종의 명문을 비롯해 363점에 이르는 국내외 한국 범종의 상세목록을 소개한다.

특히 제2부는 아카이브 형식을 따랐으며, 총 59장에 걸쳐 한국 범종 역사에서 특별한 지점을 차지하는 작품들을 선별해 자세히 들여다본다. 명문을 풀이해 조성 내력을 설명하고, 용두와 음통, 종신의 문양 등 전통을 이어받은 부분과 새로운 시도를 알려주면서 종소리를 포함해 각 작품의 특징을 하나씩 짚어준다.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저자가 직접 촬영했거나 소장하고 있던 희귀한 상세 이미지를 풍부하게 곁들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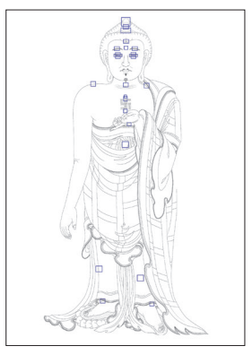
또한 성덕대왕신종, 보신각종과 같이 이제는 타종을 멈춘 종이나 낙산사 종처럼 소실된 종 등 41점에 이르는 한국 범종의 종소리 QR코드를 수록했다는 것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향후 최 교수는 일본 소재 한국 범종을 망라하는 학술서를 계획 중이다. 그는 "일본 소재 한국 범종을 망라하는 책을 계획 중에 있다. 최종적으로는 한국 범종 전체를 시대별로 개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보물 운흥사 괘불탱서 梵字 150자 확인"

문화재청 · 성보문화재硏
'대형불화 조사보고서'

머리 · 미간 등서 범자 확인
"점안통해 佛寶 거듭 의미"
국보 · 보물 괘불 조사 담아




보물 운흥사 괘불탱 주존에 그려진 범자 위치(사진 왼쪽)와 운흥사 괘불탱 범자 세부 모습.(사진 오른쪽)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운흥사 괘불탱에서 고대 인도문자인 범자(梵字)가 150자가 확인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과 (사)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현문)은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의 2021년 성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대형불화인 괘불탱을 전수 조사하는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갑사 삼신불 괘불탱(국보) △율곡사 괘불탱(보물) △금당사 괘불탱(보물) △운흥사 괘불탱 및 궤(보물) △용흥사 삼불회 괘불탱(보물) △안국사 영산회 괘불탱(보물) △서울 흥천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보물) 등 7건이 조사됐다.

조사 결과 '운흥사 괘불탱' 에서는 불화 각 존상의 머리 · 미간 · 눈 · 눈동자 · 눈꺼풀 · 거슴 등 곳곳에서 범자 150여 자가 확인됐으며, 화면 뒤편 후배지에서도 진언으로 기록한 범자와 다라니 판본을 붙여 놓은 것이 확인됐다.

불보살 존상 곳곳에 범자를 적은 것은 불상과 불화 등 신앙의 대상에 부처의 영험과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한 점안(點眼)의 의미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존상의 신체에 범자를 적는 것은 점필(點筆, 점안을 의미)과 관련이 있다. 점필은 새롭게 조성된 불보살 모두 존귀한 상호를 구비하여 예배의 대상으로 위의를 갖추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새로 조성한 불상에 종자(種子) 범자를 안포하여 불보(佛寶)로 거듭나게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운흥사 괘불탱을 감싸놓은 직물은 원래 탁의(卓衣)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안국사 영산회 괘불탱' 은 바탕재인 삼베를 세로로 길게 이어 화면을 구성했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그린 다음 합쳐서 배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결한 부분에서 상하부의 필선과 문양이 어긋나 있고, 채색 차이를 보여 대형불화 제작에 있어 분업화의 한 흔적으로 추정된다.

또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 흥천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 가 보물로 지정된 것도 이번 사업의 주요한 성과다. 문화재청은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은 매년 지방 및 비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발굴해 대형불화의 가치 제고와 보존 · 관리에 힘쓰고 있다"며 "매년 6건씩의 대형불화를 조사해 향후 2030년까지 전국에 있는 대형불화(괘불도)를 모두 집대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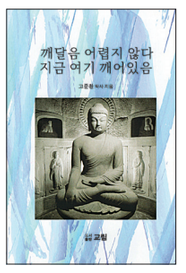
한편, 발간된 보고서는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을 통해 공개됐으며,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깨달음 대한 老교수의 강의록

고준환 박사 〈깨달음 어렵지 않다…〉서 '원력' 강조

재가불자들의 깨달음을 위한 불교교육을 이끌어 온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가 〈깨달음 어렵지 않다 지금 여기 깨어있음〉을 출간했다.



고 명예교수는 2011년 본각선교원을 개원해 불교 대중화를 발원했다. 하지만 2014년 신장암과 폐암으로 생사의 고비에 부임했다. 요양 생활에서 수행에 매진한 고 교수는 수많은 경전과 선어록을 보며 일종의 몸과 마음이 합일되는 느낌을 받는다. 다시 건강이 좋아진 고 명예교수는 코로나가 한창인 2020년 보다 열정적으로 유튜브를 통해 본각선교원 불교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깨달음 어렵지 않다 지금 여기〉에는 고 명예교수가 최근 10여 년간의 일련의 과정에서 느낀 '깨달음' 에 대한 일종의 '원력' 이 담겨있다.

이번 책에는 총 61화로 나눠 고 명예교수가 수행과정과 선지식들에 대한 탐구에서 느낀 점을 소상히 담았다.

고 명예교수가 이 책에서 말하는 바는 "깨달음은 누구나 가능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 명예교수는 "자기가 혼자 깨달을 수 있다면 무소의 뿔처럼 홀로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참된 선지식을 찾아가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고 명예교수는 수행기간 선어록 등을 공부하며 직접 선원을 찾아다니며 법거량했다. 고 명예교수는 끝으로 "우리는 이분법을 떠나 분별자재하며, 10바라밀로 업장을 녹이고 자비공덕을 쌓아야 한다. 새로운 것에 익숙하고 과거 익숙한 것에 멀어지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